



네번째 이야기

[2019 ‘말씀을 행하라’ 실천 시리즈①]

때가 차매

-12대 종가집이 복음의 집안으로-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서는 BEE의 사역현장 곳곳에서 섬김을 다하고 계시는 반상섭 집사님. 자그마한 몸집이지만 생생한 눈빛과 절도 있는 발걸음을 지닌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다. 이번 주 ‘BEE오는 수요일’ 팀에서 만나보게 되었다.



Q. 자기소개를 간략히 하신다면?

현재 온비아 팀장으로,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으며 동남아 기도테이블 리더도 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동작공동체 다락방장이기도 하구요. 가족으로는 아내 권정숙 권사와 두 딸 수연(35세, 미혼), 주연(34세), 사위(김건욱, 35세)가 있습니다. 둘째 딸네 손녀(수아)가 5살인데 요즘 아내와 함께 손녀 보는 일이 큰 낙입니다^^ 2016년도에 퇴직(국민은행)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일에 올인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Q. BEE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떠나 2005년 5월 온누리교회로 오게 되었을 때, 일대일 인도자로 연결되었던 분이 강부순 장로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마침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10층, 1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자정이 넘도록 열심히 하며 일대일 과정을 마쳤고, 성경공부에 갈급해하던 차에 강 장로님의 강권으로 2008년 온비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BEE에서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여럿 있습니다. 2008년도 7월 다녀온 베트남 아웃리치는 생애 첫 아웃리치였구요. 이후 여러 차례 다녀온 아웃리치마다 다 기억에 남았고, 특히 선교지를 알 수 있어서 참 은혜로웠습니다. 2010년도 말경 FTS를 마치고 처음 BEE 토요일도모임에 나왔을 때는 어느 테이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던 기억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FT로 처음 갈라디아서를 인도했던 첫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설렘과 떨림으로 시작했던 세미나 첫 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쳤을 때, 그 짜릿함이 참 뿌듯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2014년 BEE KOREA 창립 20주년 컨퍼런스 참석 조니부케 선교사, 로비 선교사 홈스테이

Q.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원래 저희 집안이 종갓집이고 제가 12대 종손입니다. 믿지 않는 집안이었지만 당고모님이 전도사여서 고모님 따라 교회 몇 번 나가본 것, 그리고 고모님이 저를 붙잡고 귀한 주의 종으로 세워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 제 교회에 관한 기억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을 때, 장모님께서 내거신 조건이 교회를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장모님 말씀에 순종했고..... 멋모르고 종갓집으로 시집온 아내를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년이면 여자가 남자 집안을 따라오게 되어 있던 어머니 말씀이 무색하게 저는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대부분 주일 성수하면서 나름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술도 끊지 못한 상태였고,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처음 나가기 시작했던 교회의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네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못할 것 같아 상담을 하러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집사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정리하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빠지지 마시고 주일 성수 잘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르기까지 그런 신앙생활이 20년 넘게 계속 되었습니다.

Q. 온누리교회로 옮기게 된 계기는?

전에 다니던(의정부) 교회에서 안수집사도 되고 교회 직분도 많이 맡아 이런저런 섬김이 많았지만 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장로 피택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제대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로 가자고 결심했고, 마침 딸들이 다니던 대학 근방으로 이사를 하면서 온누리교회로 인도받았습니다. 새신자 7주 과정 중 마지막 시간에 은혜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고 말씀드린 대로 강 장로님과 일대일이 연결되면서 궁금했던 것들, 고민했던 문제들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곧바로 제사를 그만두었고, 술도 끊었고, 집안 어른들과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24년 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게 되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08년 시작한 온비아 과정은 저에게 탄탄한 신앙의 토대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마침 그때는 청주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이었는데 혼자 주중에 생활하다 토요일마다 서울로 올라와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혼자 생활하던 그때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고 열심히 신나게 공부할 수 있었고, 성경통독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공부하다 출근하고, 퇴근해서 돌아오면 그대로 책상에 놓여있던 교재들 앞에 앉아 다시 공부하고, 잠들고 하던..... 벌써 추억이 되었군요.

Q. 인생 후반전에 대한 계획이나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은퇴 이후 선배들이나 동료들을 보면 다들 사업이나 돈을 벌 궁리를 하는 게 다반사인데, 대부분은 실패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굳게 다짐한 것은 ‘저는 은퇴하고 돈 버는 일에는 절대 신경 쓰지 않겠다, 오히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매진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세상 친구들이나 고향 친구들 사이에게서 ‘왜 그렇게 편안해 보이냐’는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돈 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는 체험과 믿음이 있습니다. 돈 벌 궁리에, 돈에 쫓겨 걱정 근심하는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걱정,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도제목이 있다고도 이야기해줍니다. 특히 BEE 기도테이블에 올려드린 개인기도제목들이 모두 응답받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올인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Q. 나에게 BEE란?

저에게 BEE는 웅달샘, 나침반입니다. 기도로 저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BEE 공동체를 통해 저의 삶의 실제적인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Q. 올 한 해 성령의 열매 중 개인적으로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오래 참음’과 ‘충성’입니다. 제 성격이 좀 급한 편인데 가족과 친구들에게 쉽사리 정색하고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말을 많이 들어주고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BEE와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여럿 맡다 보면 부지런히는 해도 의무적이기 쉬운데 기쁨 가운데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해봅니다.

Q. BEE에 바라는 게 있다면?

기도모임에서 지금은 테이블 멤버들이 해마다 바뀌는데 전부 바뀌기보다는 1/3 정도씩 부분적으로 이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의 연속성도 이어가고요..... 테이블 리더도 좀 더 오랫동안 맡아서 선교지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BC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학점을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사모님과 어떻게 만나시게 되었나요?^^

직장 커플이었습니다. 대학 졸업과 군 제대 후 입사한 은행에서 두 번째로 발령받은 지점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7인회’라는 남녀 미혼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 부부만 성사되었죠. 아내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종갓집에 시집와 오랜 외톨이 신앙생활하면서, 집안 식구들 사이에서, 술한 애경사 속에서 고생스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내의 기도 덕으로 저도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고, 집안 형제들 5남매 모두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서 교회로 나오시게 된 것도 아내의 편지를 읽고 나서였습니다. 가장 고집스럽던 시누이, 제 바로 밑의 여동생도 마지막으로 3년 전부터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12대 종갓집이 완전히 복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 그리고 아내에게도.



인터뷰를 통해 가까이 뵈고 보니 생각보다 오히려 감성적이시고 여린 마음을 가지신 분임을 알 수 있었다. 이곳에 미처 다 쓰지 못했지만 사모님과 따님들 이야기를 할 때에는 조금은 울먹이시기도 했다. 강한 모습 뒤에 가려진 사랑의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져 왔다.

당고모님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 입대해서는 자연스레 부대 내 교회에서 예배하고, 제대할 때는 한경직 목사님께 진중세례도 받고..... (한경직 목사가 어떤 분인지는 결혼 후 한참 지나서야 아셨다고^^) 결혼하고서는 아내의 기도가 뿌리를 내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드디어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반 집사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다시금 되새겨본 인터뷰가 되었다. 이제 6월이면 사모님과 함께 큰 따님이 있는 시카고도 다녀오고 한 달가량 여행을 가신다고 한다. 따님이 미국 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치는 모양이다. 부디 좋은 시간 보내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정이 되기를 기도해본다.

[인터뷰, 글 : 김종영 'BEE수'기자]

BEE의 보석 찾기

04. 박소현 집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남편(이광 집사)이 먼저 공동체 장로님의 권유로 BEE를 시작했고, 저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세미나로 BEE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BEE를 통해 제 마음의 방향과 혼란의 원인을 찾았고, 성경공부의 유익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경공부를 좋아하여 신학까지 공부하게 되었는데, 저는 남편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적극적으로 BEE에서 활동하고 있고, 저는 아직 BEE기도모임에만 참석하는 수준으로 BEE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BEE란 '선교를 향한 작은 관심의 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끈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송파B공동체에 속해 있고, 28년차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현재는 송파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작년에 결혼해 뉴저지에 살고 있는 큰 딸과 25세의 작은 딸이 있습니다.

05. BEE 보석을 찾아요~

* 다음 주 보석 찾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BEE를 통해 '기도와 사명'에 대해 깨달았기에 BEE기도 모임이면 언제나 어디든지 계시는 권사님! 목회하시는 남편의 든든한 중보자로 함께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귀한 권사님이 반짝반짝 빛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1. 3월 23일(토) 권태남 김미연(유하, 새하)선교사님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 새하의 출산 때문에 7개월 간 한국에 머물렀다가 이제는 네 식구가 되어 케냐(3월 28일 자정 출발)로 돌아갑니다. 유하의 유치원과 새롭게 적응하는 시간, 사역들과 오고가는 여정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 4월 6일(토) '기도 테이블 총출석'의 날! 꽃피는 4월을 맞이하여 자주 보지 못해 그립고, 보고팠던 테이블 식구들 함께 모여 맛난 식사와 나눔으로 더욱 풍성할 '그날'. 모이기를 더욱 힘씁시다.
 3. 4월 27일(토) 2019 상반기 온비아 수련회가 '강화 성지 탐방'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비아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해 선교와 BEE에 대해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중보해 주세요.
 4. BEE 기도 테이블 소식입니다
- * 본부 동북아 테이블의 김관수 집사님의 따님(늦은 결혼! 41세 첫 출산!!)이 어여쁜 딸을 순산하였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께 드릴 새 노래가 가득하리라 생각합니다. 아기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자라나도록 기도합니다.

